

GICON,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 집중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전환 시대 맞아 AI·ICT 기업 등 대상 실무형 교육 강화

GCC사관학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역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미래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GICON은 특히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광주’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를 비롯한 호남지역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실무형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22일 GICON에 따르면 직접 운영중인 ‘GCC사관학교’의 온라인 콘텐츠 교육과정을 대폭 늘린다. GCC사관학교는 글로벌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감형 콘텐츠,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 4대 핵심 분야의 온라인 강의 310여 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강의는 각각 40분 내외로 구성됐으며,

누구나 조건 없이 GCC사관학교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 강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의 제작 관련 실무부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의 인카메라시각효과(ICVFX)를 활용한 교육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

게임 강의로는 유니티(Unity),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등 실제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도구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 및 구현까지 가능하도록 실전 교육을 선보인다.

웹툰 강의에서는 스토리 기획, 캐릭터 설정, 콘티 작업 등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며, 애니메이션 강의는 2D·3D 제작 기술과

산업 현장 중심의 기획력과 분석력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GCC사관학교는 지난해 1기생 132명이 수료했고, 콘텐츠 생산분야에서 인턴십 88명, 취·창업 60명을 기록하는 등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의 성과를 냈다. 올해 역시 2기생 140명이 입교했으며, AI를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200여개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미래재능사업’ 역시 GICON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SW)와 AI 분야의 전문 인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일자리 매칭까지 나서고 있다.

현재는 ‘5월 찾아오는 AI·SW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5명, 올해 100명 등 총 205명의 SW·AI 분야의 지역 인재가 고용되는 성과를 냈다.

GICON은 또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직무역량 제고 및 인재 확보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으로, 호남지역 AI·ICT 기업 신규 인재에게 실무형 교육을 제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GICON은 오는 6월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호남지역의 AI·ICT 기업을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AI·ICT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인력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최대 2인)의 현장실무 교육 강사료를 지원한다.

신규 인재 교육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6시간 정도 진행되며, AI, 웹·모바일 앱 개발, 빅데이터, 백엔드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게 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실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미국 관세 행정 대응 설명회 광주세관, 애로 맞춤형 상담



광주본부세관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제공됐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 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과성 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 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자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본부세관의 설명이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북과 제주 지역까지 미국 관세 행정 대응 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노동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은행 노동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기념식에는 박흥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광주은행 노동조합 창립 기념의 의미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5월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병행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5월의 희생으로 이룩한 5·18 정신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행사에서 5·18 유가족 및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금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성금 2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18기념재단에 전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3.67 (-31.91)
↓ 코스닥	717.67 (-5.95)
↓ 금리 (국고채 399년)	2.336 (-0.009)
↓ 환율 (USD) 〈오후 4시 49분 기준〉	1381.20 (-5.95)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10월 APEC 경주선언 도출 노력”

이주호 대행 주재 준비위 회의

성공 개최·정상회의 성과 다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22일 “이번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그간의 APEC과 차별화해 이른바 경주 선언, 대한민국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은 각국 정상들에게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상회의의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ABAC 한국의 주도로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도 다짐했다.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는 여내 기업인의 무역·비즈니스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 시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템으로, 조 부회장은 일찍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한 상태다.

조 부회장은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 기간에 채택될 ABAC 건의문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주요 개선 과제들이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부회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베트남과 부산에서 열리는 ABAC 3·4차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제 사회를 돌며 대한민국 대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앞서 조 부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현지 시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5 ABAC 2차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

실성 증대로 아·태지역 경제·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모아 회원국 통상 장관에게 전달 메시지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조 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통한 ‘지속적 번영’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중 하나로 APEC 카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그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4차례 ABAC 회의를 통해 모인 ABAC 위원들의 의견을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 부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BAC 의장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와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비즈니스·민간 외교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조 부회장은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해 12월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2월에는 대미경제사절단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밀집모자로 멋 내 보세요” 22일 광주신세계 본관 3층 ‘헬렌카민스키’ 매장에서 모델이 밀집모자를 선보이고 있다. 헬렌카민스키는 모자 전문 브랜드로, 밀집모자 상품에 열대식물인 야자 잎으로 뽑은 섬유인 ‘라피아’를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게 특징이다. 헬렌카민스키 베스트셀러인 ‘비앙카12’가 대표 상품이며, 올해 출시된 신제품 ‘에린’은 카펫, 네추럴, 블랙,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1인 가구 8년만에 40% 늘어…아파트 거주 11% ↑

전남은 같은 기간 38% 증가

증가 요인 1위는 ‘배우자 사망’

광주와 전남지역 1인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52년에는 광주·전남지역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1인 가구 변화상’에 따르면 광주시 1인 가구 수는 2015년 16만 4000가구에서 2023년 22만 9000가구로 6만 5000가구(39.6%) 증가했다. 광주지역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 역시 30.7%에서 36.5%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전남 1인가구 수는 21만 9000가구에서 29만 5000가구로 7만 6000가구(34.7%) 늘었

고, 1인 가구 비중 역시 6.4%p 오른 37.1%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1인 가구 비중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35.5%)를 넘어섰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9위와 8위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곡성군이 44.9%로 1인 가구 비중이 호남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에서는 동구(43.6%)와 서구(38.5%)가 상위권을 기록했고, 전남은 곡성에 이어 고흥(43.1%)이 2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의 1인 가구 주거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비중은 감소하고, 아파트 비중이 증가했다. 광주시 1인 가구 중 단독주택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48.7%였지만, 2023년에는 37.3%로 11.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남 단독주택 거주자 비중도 67.0%에서 57.1%로 9.9%p

줄었다. 반면, 아파트 거주자 비중은 광주가 50.5%로 2015년(40.5%) 대비 10%p 많았고, 전남도 8.7%p 높은 32.2%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1인 가구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이유’를 보면 광주시의 경우 ‘혼자 살고 싶어서’와 ‘학업이나 직장(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고, ‘배우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36.2%로 2020년(21.9%)보다 14.3%p나 높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혼자 살고 싶어서’와 ‘기타’ 항목이 각각 3.7%p, 4.7%p씩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향후 지속 증가해 오는 2052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월 광주·전남

소비·건설투자·수출

경기지표 모두 악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이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주요 측면에서 지역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 3월 기준 100.6으로 전년 동월(105.1) 대비 8.0% 감소했다. 업태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각각 7.9%, 8.3% 줄어든 결과다.

같은 기간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3에서 86.8로 4.8% 감소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장기평균치의 기준인 1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역 내 소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 3월 기준 676억원으로 전년 동월(641억원) 대비 35억원(2.9%)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건설투자 분야 역시 ‘부동산 한파’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3월 중 광주지역 건축착공면적은 1년전보다 73% 줄었고, 건축허가면적도 67.9%나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416호로 전월과 같았다. 1달 새 계약된 아파트가 전혀 없었음 만큼, 부동산 거래가 부진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도 각각 43%, 53.5%씩 감소했다. 특히 건축착공면적은 상업용(-50.3%)과 공업용(-60.3%)을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고물가 장기화와 소비침체 등으로 인한 자영업 감소 및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수출액도 모두 감소했다. 광주지역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 3월 기준 5820만 달러로 전년 동월(6460만 달러) 대비 7.9%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